

## 화이트데이 특수 이렇게 준비하라 캔디제품에 이어 다양한 기획 상품 필요

〈취재 / 허미경 jpkjong@mbakery.co.kr〉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이어가기 위한 각 업체들의 '화이트데이 마케팅'이 발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특히 발렌타인데이가 설날과 맞물려 기대에 못 미친 매출을 기록한 베이커리 관련 업체들은 평일인 화이트데이를 2차 특수로 인식, 다양한 상품을 기획 중이다.

파리크라상은 SBS, 결혼정보회사 등과 공동으로 '싱글을 위한 케익 만들기, 사랑만들기'를 기획 중이다. 이 행사는 온라인 회원 가입자 가운데 100명의 독신남녀를 선발해 미팅 이벤트와 케이크 만들기를 함께 하는 페스티벌로 3월 9일과 10일 양일간 진행된다.

또한 이 업체는 연인들을 위한 선물용 제품으로 50여종의 캔디와 8가지 케이크 제품 및 쿠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온도변화에 따라 메시지가 변하는 정제 캔디 '사랑의 묘약'과 '시들지 않는 생화세트' 등이 화이트데이를 겨냥한 기획상품으로 새롭게 출시된다.

뚜레쥬르는 프랑스산 고급 캔디 세트를 비롯한 다양한 캔디류와 벌크상품, 초콜릿 제품 등으로 화이트데이를 준비 중이다. 각 매장의 자율성을 최대 지원할 계획인 이 업체는 유리를 이용한 포장 용기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크라운베이커리와 고려당은 크기와 가격, 디자인 등을 다양화시킨 제품을, 신라명과는 바구니 제품과 더불어 지함 위주의 캐릭터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프랜차이즈업체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에 비해 일부 자영제과점에서는 점포 고유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기획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송파구에 위치한 하이제과자점은 기대 이상으로 케이크 판매에 호조를 보였던 발렌타인데이를 감안해 캔디 제품을 기본으로 다양한 기획 상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미니케이크, 동물 모양의 초콜릿 등 예전 화이트데이 때는 볼 수 없



었던 색다른 제품으로 고객들의 구매욕을 자극한다는 계획이다.

중구에 위치한 프랑세즈과자점도 소형 하트케이크, 화이트케이크 등을 비롯한 화이트데이 특별 케이크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 점포는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남성 고객들을 겨냥해 공예 제품도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그밖에 대부분의 자영제과점도 다양한 포장재를 활용한 개성있는 세트 제품을 직접 제작해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포들의 발빠른 준비에 맞춰 포장 전문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포장 전문업체인 D&D의 김평두 사장은 "소매 구입이 많은 발렌타인데이와는 달리 화이트데이에는 업체의 주문이 많다"며 "올해는 바구니보다 세트 제품 제작이 용이한 상자류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들어 롯데닷컴, 천년사랑, 캔디보이, 쿠키카드 등 발렌타인 및 화이트데이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 쇼핑몰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간편한 온라인 구매로 향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서 자영제과점들은 기존 아이টে를 극복한 상품 기획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